

화장품 관련 모든 분야 총망라 심플하고 감각적인 패키지 경향 돋보여

구규우 / 애경산업 디자인실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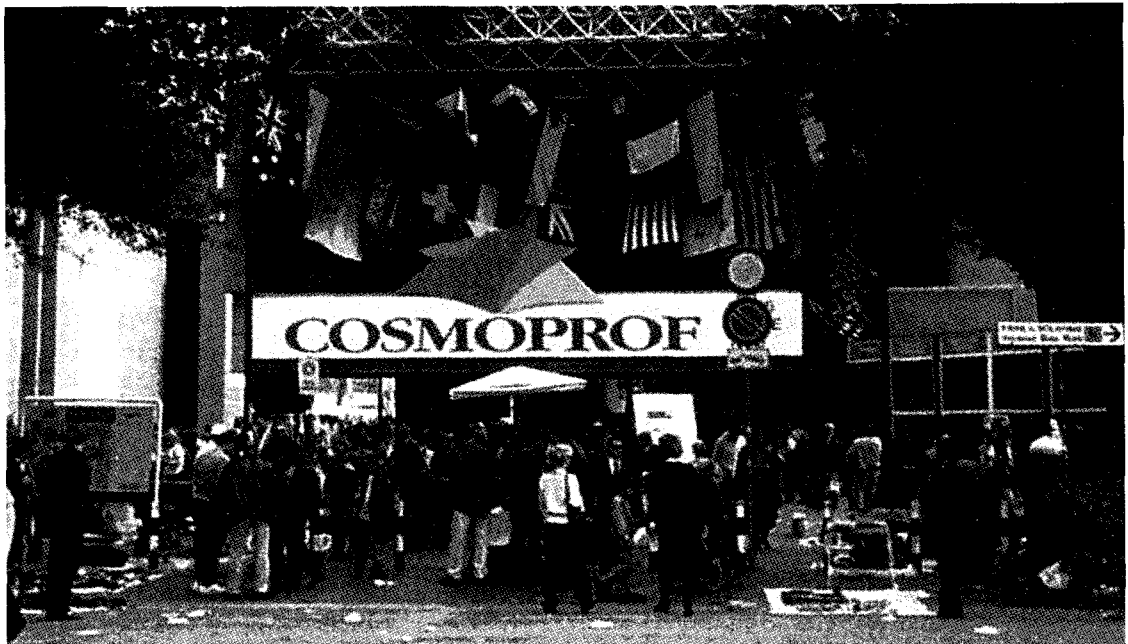
COSMOPROF '99 볼로냐는 유럽의 화장품 회사들을 주축으로 한 화장품 관련업종이 총망라된 종합박람회이며, 비즈니스와 이벤트가 동시에 어우러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박람회라 할 수 있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었고, 전시참가업체 1천9백99개, 제품유형별 전시부스 1천4백59개 (이태리 전시부스 8백83개, 외국인부스 5백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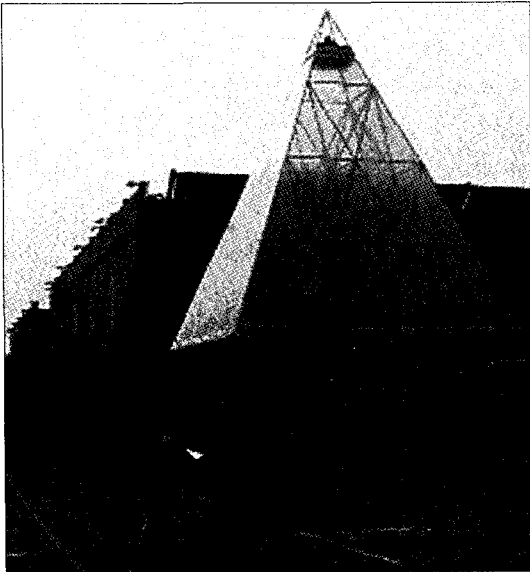
개) 등 15개국이 참가했고 참관인원도 12만명 정도에 이르렀다.

행사 첫날인 23일엔 메이크업 시연회, 언론총회, 1999 코스모팩(용기류 총회), "아름다움의 나이"에 대한 토론 및 의사협회와의 토론이 열렸고 24일엔 메이크업에 관한 패션과 컬러메이크업 시연회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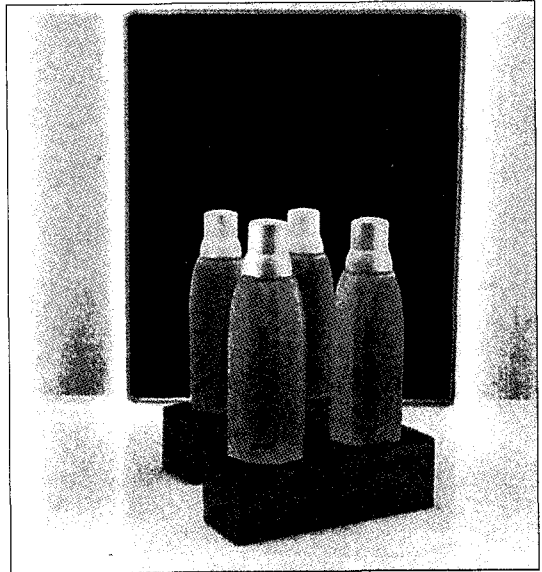
행사 세번째 날인 25일에는 메이크업 시연, 헤어쇼, 국제회의 등이 열렸으며 마지막 날에는 피



▲ COSMOPROF 전시장 전경



▲ 메이크업 단독부스를 설치한 COTY사의 야외 전시관



▲ 크리지아의 향수 신제품 '아이스버그'

부보호를 위한 화장품학 차원에서의 국제회의 등이 진행됐다.

참가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향수를 비롯하여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포장류, 부자재용품, 피부미용기기, 피부미용제품, 전신미용제품, 헤어케어류, 보석류, 전문언론잡지 등 21개관으로 분류됐다.

향수류에서는 다비도프의 '굳 라이프', 베르사체의 'V/S', 크리지아의 신제품 '아이스버그' 등 다수의 제품들이 전시됐다.

그리고 전시 디스플레이 또한 제품의 컨셉에 부합되는 디스플레이로 연출했으며, 가장 화려하고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부분이기도 했다.

기초제품으로는 기능성의 피부관리제품과 방향요법을 아로마테라피, 반짝이는 메이크업 펄류, 펄 매니큐어, 펄 컬러 헤어스프레이 등 반짝이 소재의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세기가 바뀌어지는 지금 시점에서 21세기의 화장패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도 있었다.

역시 21세기의 화장패턴으로는 과감한 화장기술과 보디페인팅, 헤어쇼의 이벤트이며, 특히 메이크업의 단독부스를 설치한 코티시는 수십명의 남자 아티스트가 현장에서 참관객 등을 상대로 한 메이크업 서비스를 실시하여 젊은 여성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역시 많은 인원들이 들끓었다.

부자재용품 중에서는 용기류, 패키지류 등 다양한 소재의 부자재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예년에 비해 많이 확대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몇몇의 한국업체가 참가하여 활발한 상담을 실시하는 모습이 간혹 보이기도 했으나 동양권의 화장품회사로는 일본 시세이도의 독립부스가 유일하게 눈에 띄었으며 그 외에는 두드러



▶ 감각적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 미용가
구 전시장

지는 부분이 없었다.

일본의 화장품 및 부자재 관련 업체들의 전시 참가가 의외로 미비하여 적지않은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 공간활용이 돋보이는 미용가구전시의 예

미용기기 분야로는 비만관리, 주름제거기, 알파마사지기, 초음파미용기, 물 마사지기, 이온스티머, 제트슬림, 원적외선 뷰티사우나 등이 전시됐으며 미용기구들의 전시도 보여졌는데 상당히 화려하고 감각적인 컬러와 가구디자인으로 가구 박람회를 보고 있는 듯한 생각도 들게 했다.

헤어제품 전시장과 이벤트 홀은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로 매시간 만원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패션의 도시라 일컬어지는 이태리 사람들의 패션감각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모노톤의 의상으로 주류를 이루었고 이는 기존의 모노톤에서 발전된 메탈릭의 소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참고로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남미의 상파울로에서 개최되는 "COSMOPROF COSMETICA" 및 홍콩에서 개최되는 "COSMOPROF ASIA" 전시를 관련 박람회로 개최하고 있다. ☐